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4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자) 사순 제1주일

2024년 2월 18일 (제2069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TEL 510-553-9434
 근무시간: 토/일(8am~4pm)

E-mail: standrewoak@gmail.co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영어 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 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창세기 9,8-15

화답송 시편 25(24),4-5 7ㄴ.6과 7ㄴ.8-9(◎ 10 참조)

- ◎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베드로 1서3,18-22

복음환호송 마태 4,4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마르코 1,12-15

영성체송 마태 4,4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또는> 시편 91(90),4 참조
 주님은 당신 깃으로 너를 덮어 주시리니, 너는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성가]	8시	입당 489	봉헌 513	성체 119	파견 122		
	11시	입당 115	봉헌 215	성체 166 172	파견 124		
사순1주일	2월 18일(일)		2월 20일(화)	2월 21일(수)	2월 22일(목)	2월 23일(금)	2월 24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채성일 토마스	유인웅 닷	정미경 말가리다	이명련 페트리샤	이명련 페트리샤	이명련 페트리샤	성령기도회
독서	정기환 레안델 정미경 말가리다	최대연 다니엘 이정연 콜롬바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성령기도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더	장희숙 루시아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부활 판공성사**

- 사순시기동안 매 미사 30분 전에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 **사순시기 복음환호송/신앙의 신비**

- *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30분전(오후 7시)
매주 주일 8시, 11시 미사 30분 전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 **사순시기 외부신부님 판공성사**

- 예수회 박수영 테오도로 신부님
- 일시 : 3월 17일(일), 오전 10시부터.

■ **사순시기 특별강론**

- 예수회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부제수사님
- 일시 : 3월 10일(일), 주일미사

■ **Jfam과 함께 찬양과 본당사순시기 피정**

- 일시 : 3월 15일(금), 오후 7시: Jfam과 함께 찬양
3월 16일(토), 오전 11시-오후 4:30 사순시기 피정

■ **사순시기 rice bowl**

- 성당입구에 rice bowl이 있습니다.
- 부활절(3월 31일)에 봉헌해주시면 됩니다.

■ **토요일 미사전례**

- 2월 24일(토) 성령기도회
- 병자성유도유예식이 있습니다.

■ **예비신자 교리시작**

- 일시 : 3월 3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 **2월성경 통독**

- 2월 바오로 서간(읽기분량 : 로마서 13.1-16,27)

■ **모임 및 회의**

- 콘트라코스타 : 2/18(일) 오후 12:30 교육관 107호
- 오클랜드 : 2/18(일) 오후 12:30 교육관 106호
- 알라메다 : 2/18(일) 오후 5:30 BB BOWL
- 헤이워드 : 2/21(수) 오후 5시 윤세레나 가정
- 울뜨레아 : 2/25(일) 오후 1:00 교육관 107호
- 성 모 회 : 3/3(일), 교중미사 후 교육관 107호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올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 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신공진 요한, 박숙모 아네스, 박인규 시몬, 이안 Franks, 손한석 가브리엘, 김정희 올리엠타, 정화봉 로사,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이상주 카타리나, 임희숙 세트리다

■ **성당 내 안전 유의**

- ① 성당내 운전 10마일 이하
- ② 식탁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 ③ 성당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 ④ 성당 계단에 주의

■ **밥나눔 안내**

- 오늘 밥나눔 있습니다.
- 줄수를 맞이하신 황말찌나 자매님께서 2월25일(일) 밥나눔에 본당신자 분에게 무료티켓을 나누어드립니다. 당일 구순연이 있겠습니다.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삼칠오-오일사칠)

■ **2024년 4월 황금빛인생여행**

- 날 짜 : 4월 15일(월)-19일(금) 사이에 떠날 예정입니다.
- 장 소 : 빅베이슨, 보데가베이, 사무엘 공원
- 신 청 : 사목회부회장 유다윗, 총무 지시몬, 황금빛인생위원 이아네스
- 신청 방법

(1) 빅베이슨(15일,월)	2시간 여행, 산림욕, 한국식당
(2)보데가베이(17일, 수)	2시간 여행, 골프파티
(3)사무엘 공원(19일, 금)	1시간30분, 바베큐

- * (1)~(3) 중에 본인의 건강과 취향을 고려해서 한가지만 신청
- * 신청서 작성시에 교회책임면제 양식에 서명
- * 신청마감일 : 3월 3일(일)까지입니다.
- * 버스과 식당 예약 관계로 신청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던지니스 게 파티**

- 본당 어르신 형제자매님을 위한 게 파티가 3월 2일(토) 오전 11시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안나요아킴 2월 라인댄스 일정**

- 셋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밥나눔 이후.

■ **그룹성경공부 모집**

- 창세기A : 모든 교우, 주일 점심후, 성당교육관
- 창세기B : 모든 교우, 화요일 오전 10~12시, Zoom
- 창세기C : 모든 교우, 목요일 저녁 7~9시, Zoom
- 탈출기:창세기수료자,(요일,추후공지) 저녁 7~9시, Zoom
- 신청 : 권 마리크리스티나 수녀 (칠일사-구공공-공이팔이)

■ **어르신 휴대전화 사용 문의-친교실 본당청년/하상회**

■ **성경 전체 필사 노트 전시 - 정순자 에디나 자매님**

■ 24년 본당달력 더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10부 남았습니다).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아델라(2/24) : 김다솜, 강소영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언제나 다음과 같은 자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탈출 20,2). 이는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첫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탈출(exodus)이 무엇인지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겪은 속박에 무겁게 짓눌려 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자유로 이르는 길인 "열마디 말씀"을 받았습니 다. 당신의 백성을 형성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힘을 강조하고자, 우리는 이 말씀을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로의 부르심은 힘든 요구입니다.

곧바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로 무르익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주 과거를 그리워하고 주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여전히 이집트에 매여 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느님 백성은 벗어나라고 부름받는 건디기 힘든 속박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막 같은 삶을 헤매고 우리 목적지인 약속의 땅을 필요로 하며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에 우리는 참으로 그러한 속박에 매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순 시기는 은총의 때입니다. 이 은총의 시기에 호세아 예언자의 말처럼, 광야는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호세 2,16-17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을 형성하시어 우리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가는 파스카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신랑처럼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말씀을 속삭이시며 우리를 당신께 다시 한번 이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과 탈출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듯이, 이는 어떤 싸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마르 1,11).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탈출 20,3). 하느님의 이 목소리에 원수와 그의 거짓말이 대적합니다. 파라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스스로 세운 우상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상들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해진다는 말, 모든 이에게 우러러보인다는 말,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한다는 말. 그러한 거짓말이 얼마나 유혹적일 수 있는지 모든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돈에, 특정 계획이나 생각이나 목표에, 지위에, 전통에, 심지어 특정 개인에게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는커녕 무기력하게 만들고, 만남 대신에 갈등을 낳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류도 있습니다.

곧 거짓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작은 이들과 겸손한 이들로 이루어진 백성입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들처럼,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시편 115[114],4 참조). 반면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열려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을 치유하고 지탱하는 소리 없는 선의 힘입니다.

람페두사를 방문했을 때, 저는 무관심의 세계화에 맞서는 길로서 점점 더 절실해져 온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창세 4,9)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두 질문을 귀여겨듣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파라오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사순 여정도 구체적이 될 것입니다. 그 지배는 우리를 지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에게서 미래를 앗아가는 성장 모델입니다. 지구와 대기와 물은 오염되었고 우리 영혼 또한 더럽혀졌습니다. 참으로, 세례로써 우리의 해방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우리에게서는 종살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향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안도감으로의 끌림, 우리 자유를 훼손하는 방향으로의 끌림입니다.

탈출기 이야기에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시어 자유를 가져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파라오는 꿈을 억누르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차단하며,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진정한 유대가 거부당하는 이 세상이 결코 바뀔 리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파라오는 모든 것을 속박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새 세상을 원하는가?" "나는 묵은 것과 타협하는 데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의 많은 형제 주교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일하는 많은 이의 증언 덕분에, 저는 꿈을 억누르는 희망의 결여에 맞서 그리고 하늘에 가닿아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 없는 울부짖음을 위하여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결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종살이에 대한 향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탈출은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인류가 보편적 형제애의 문턱에 도달했고, 과학적, 기술적, 문화적, 법적 수준도 모든 이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인류가 아직도 불평등과 갈등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45명	157명	202명

주일 헌금		2차헌금		교무금	Bishop's Appeal	감사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인생
8시 미사	교중미사	8시	교중							
[교무금]이기하(1-12), 양우선(1-3), 김영자(1-3), 유윤미(2), 조우승(4), 최용일(1-6), 최윤기(2), 강수영(2), 전문가(2), 최정안(3-4), 김명환(1-3), 최삼남(2), 김영민(2), 천종욱(2)					최윤기 김영민	김관용	최윤기 강수영		이기하 조우승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2/18(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2/20(화)	연	최정자 켈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신진남 엘리사벳	신미카엘라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연	김명철 빅토르	가족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이명진 다윗	엠포트리샤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스가족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2/21(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연	김명철 빅토르	가족
	연	김마르코	가족				
	연	김정탁 요셉	자녀들		생	이명진 다윗	엠포트리샤
	연	김화순 안나	자녀들				
	연	최순일 요셉	순배 수산나				
	연	최순일 요셉	가족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2/22(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신진남 엘리자벳	신미카엘라		연	김명철 빅토르	가족
	연	홍숙자	정혜경 데레사		연	강평길	장희숙 루시아
	연	채인국 다니엘	이에스터				
	연	김명철 빅토르	대건회				
	연	김명철 빅토르	김원덕 시몬		생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지영남 요한
	연	강평길	강성진 가브리엘		생	이명진 다윗	엠포트리샤
	연	이상예 포띠나	김정옥 그라시아				
	연	채규임 데레사	김향진 소피아	2/23(금)	연	김명철 빅토르	가족
	연	강평길	순교자들의 모후		연	남순홍 율리안나	정요한/가브리엘라
					생	이보람 베네타	이야고보 카타리나
	생	장민우	송아네스		생	이명진 다윗	엠포트리샤
	생	박진영 베드로	박덕희 마리아				
	생	김지영	익명	2/24(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이선미 에스터	김엘리사벳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주정희 마리아	김엘리사벳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김엘리사벳	익명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생	김인석시메온신부님	정요한/가브리엘라		연	김명철 빅토르	대건회
	생	이명진 다윗	엠포트리샤		연	김명철 빅토르	가족
					연	채규임 데레사	김혜숙 아네스
					연	박판기 세실리아	최대연 다니엘
					생	이명진 다윗	이명란 아네스
					생	이명진 다윗	엠포트리샤
					생	이명국 바오로	이명란 아네스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p>	<p>폴킴 & 김영선 안젤라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418-0358 DRE #01851957 #01036902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p>
--	--	--	---